

홍영희 (숙명여자대학교)

朝鮮 算書 數理精蘊補解

明末에 예수회 신부들에 의하여 서양 수학이 중국에 전해진 후 淸의 康熙(1654-1722)가 이들로부터 서양 수학을 배우는 한편, 예수회 신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수학자 何國宗, 陳厚耀, 梅穀成, 明安圖 등에 명하여, 서양 수학과 중국의 수학을 집대성하여 <<數理精蘊>> 53권을 천문학에 관한 <<曆象考成>> 42권, 음악에 관한 <<律呂正義>> 5권과 함께 <<律曆淵源>> 100권으로 1723년에 출판하게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.

<<數理精蘊>>의 구조와 함께, 이에 관한 해설서로는 조선에서 최초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명 미상인 鶴山 樵夫의 저서 <<數理精蘊補解>>에 대하여 조사한다. 출판 연대는 “時憲曆元甲乙後一百三年”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에서 시작한 時憲曆은 1645년(乙酉)이고 조선에서 채택된 것은 1653년이므로 1747년에서 1755년 중의 하나이다.

<<數理精蘊>>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18세기의 조선의 산서로 黃胤錫(1719-1791)의 <<算學本原>>과 洪大容(1731-1783)의 <<籌解需用>>이 있지만 이들과 비교하여 <<數理精蘊>>을 제대로 이해한 해설서로는 <<數理精蘊補解>>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. 특히 借根方比例, 즉 다항식과 방정식의 표기법을 기호와 함께 소개한 조선의 산서로 유일한 것이다. 李尙燦(1810-?)의 이에 대한 해설서인 <<借根方夢求>>(1854)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.

장혜원 (경인교육대학교 과학연구소)

클레로의 기하학원론과 학교 수학

클레로(A.C.Clairaut)의 기하학 원론(Élément de géometrie, 1741)은 유클리드 원론의 논리-연역적 전개 방식에 대항하여, 수학사를 근거로 해서 학습 내용과 활동을 조직하는 역사발생적 원리에 입각하여 쓰여진 최초의 기하 교재라는 점에서 수학교육학적 의의를 지닌다. 유클리드의 원론에 가해진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역사 및 학교 수학에서 차지하는 유클리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클레로의 의도와 전개 방식은 수학 및 수학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.